

“쉽고 편리한 특허검색, KIPIRIS 이용하세요” KIPIRIS 최고령 회원, 이명규 옹

“KIPIRIS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특허검색을 할 수 있으니 참 좋은 세상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출원했던 내용에서부터 최근 까지의 내용들을 컴퓨터를 통해 볼 수 있다니 말입니다.”



올해로 95세(1909년 생)로 KIPIRIS회원중 최고령이신 발명가 이명규 옹은 특허청 서울사무소 KIPIRIS 열람실의 주 단골손님이다.

특허청이 대전청사로 이전하기 전부터 서울사무소 열람실을 이용했다는 이 옹은 컴퓨터를 통해 특허정보 검색을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에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설 문화센터에서 컴퓨터 인터넷 검색 교육까지 이수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과거 공개 공보 책자를 통해 열람하던 때에 비하면 정말 좋은 세상이지요. 이런 편리한 검색방법이 있는데 컴퓨터를 어찌 안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너무 재밌어서 하루에도 여러 번 KIPIRIS를 검색하곤 합니다.”

이명규 옹의 인생은 발명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15세 되던 해인 보통학교 3학년 시절 곡선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곡선측정기를 최초로 개발, 일본인 선생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을 시작으로, 27세 되던 해인 1936년 우리나라 최초의 변리사로 알려져 있는 이창우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조선특허대리국을 통해 일본 출원을 시작했다.

이 출원은 등록되어 실용신안 506호 다색인쇄기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평소 사소한 것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 오늘날 왕성한 발명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염라대왕이 부를 때까지 저의 발명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옹은 지금까지 총 200여 건의 아이디어를 출원하여 약 70% 가량의 등록을 이끌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명가가 그렇듯 발명이 부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사람들은 발명가고 하면 큰 돈을 벌었을 꺼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저 히트곡 없는 무명가수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의 노력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만은 갖고 있습니다.”

이 옹은 KIPIRIS에 바라는 점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초기에 검색할 때보다 향상됐으며, 앞으로도 편리한 방법을 개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허 제130441호(소화 14년 공고 제18호)
이명규 옹이 1939년 출원해 등록된 田植機.
일제시대의 특허전문이 이제보다.